

‘추석 대목 두렵다’… 中企 10곳 중 4곳 “자금사정 더 나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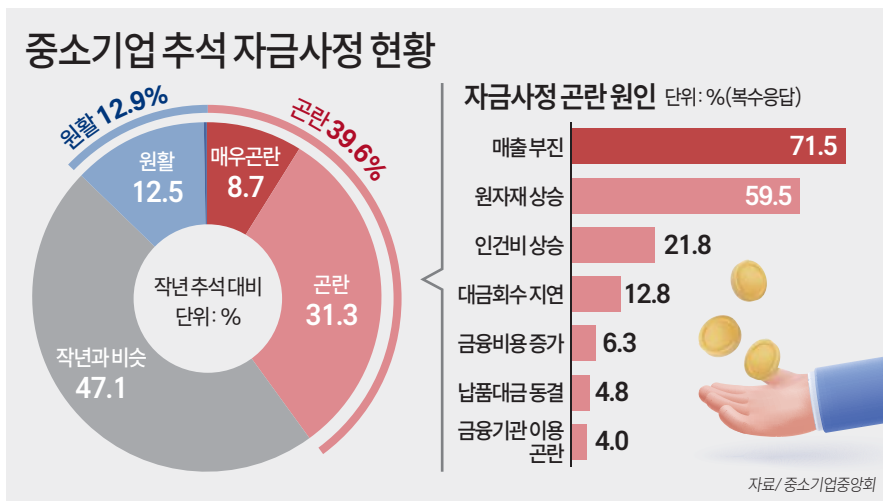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1000곳 설문조사
40% “자금사정 곤란” 원할 13% 그쳐
판매부진·원부자재값 상승 주원인
기업당 추석 필요자금 2억5645만원
필요자금 23% 부족차입 등으로 중당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은 45.1%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지난해보다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이번 추석에 평균 2억5645만원이 필요한 가운데 5848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10곳 중 8곳 이상이 추석 공휴일 외에 추가 휴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곳 중 1곳 정도만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업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17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40%로, '원할하다' (12.9%)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47.1%였다.

'자금사정 곤란 원인' (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부진'이 71.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원·부자재가격 상승(59.5%) ▲인건비 상승(21.8%) ▲납품대금 회수 지연(12.8%) 순으로 많았다.

추석때 필요자금의 약 23%가 부족한 가운데 기업들은 ▲납품대금 조기회수

(40.6%) ▲금융기관 차입(38.3%) ▲결제 연기(29.9%) 등을 통해 융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권 차입 여건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 추석 대비 '곤란하다'는 응답이 27%로 '원할하다'는 응답(12.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60.4%였다.

이런 가운데 추석상여금 지급계획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절반에 살짝 못미치는 45.1%였다. 이외에 '미지급'은 38.5%, '결정하지 못함'은 16.4%였다.

상여금 지급수준은 정률지급의 경우 기본급의 37.7%, 정액지급은 평균 66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추석 추가 휴무계획에 대해서 전체 기업 중 85.1%가 추석 공휴일 외에 '별도 휴

무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추가 휴무계획이 있는 기업(14.9%)조차 평균 추가 휴무일은 반나절 수준인 0.4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담은 물론 단기 운영 자금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족한 명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기 회수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결제 대금 지급 연기까지 고려할 만큼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자금난이 연쇄 부실로 이어지지 않고 전통시장 상인 등 취약 부문까지 정책 온기가 신속히 닿을 수 있도록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삼성, '맞춤 AI가전'으로 인도 시장 넓힌다

무풍 냉방·수면·가족돌봄 강화
스마트싱스 기반 현지 맞춤 공략
인도 넘어 중남미 맞춤 전략 확대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현지 생활환경에 맞춘 인공지능(AI) 가전을 앞세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고온다습한 기후와 가족 중심 문화를 반영한 기능을 내세워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 구루그람에서 글로벌 가전 테크세미나 '더 브리프(The Brief)'를 열고 2026년형 AI 가전을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인도는 삼성전자의 주요 가전 시장 중 하나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도 냉장가전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22%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LG 전자(21%)와 월풀(17%)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아 AI 가전을 앞세워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가사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일상까지 살피는 '일상 속 AI 동반자' 전략을 강조했다.



16일 인도 구루그람에서 열린 삼성전자 가전 테크세미나 '더 브리프(The Brief)'에서 참석자들이 현지에서 특화한 AI 가전과 AI Home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무더위엔 무풍, 부모 안부까지 챙기는 AI

인도 특유의 기후를 겨냥한 냉방 기술도 선보였다. '비스포크 AI 무풍 프로'는 송풍 날개인 '모션 블레이드'를 활용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5가지로 조절한다.

갤럭시 위치와 갤럭시 링을 연동한 '웨어러블 굿슬립'은 사용자의 수면 단계와 체온 변화에 따라 에어컨을 조절한다. AI 에너지 모드를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30% 줄일 수 있다.

AI는 가족 돌봄에도 활용된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서는 사용자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 브리프'를 이용할 수 있다. '패밀리 케어'는 떨어져 사는 부모의 가전 사용 패턴을 확인해 일정 시간 활동이 없으면 가족에게 알람을 보낸다.

제품 관리도 원격으로 지원한다. '스마트싱스 홈케어'는 가전 상태를 확인해 필터 교체나 청소 시기를 알려준다.

◆인도 이어 중남미… 지역별 생활환경 맞춘다

삼성전자의 현지 맞춤형 AI 가전 전략은 중남미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브라질 상파울루에 이어 이달 9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도 현지 주요 매체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더 브리프'를 열었다.

중남미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가사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앞세웠다. 무풍 AI 에어컨은 사용 패턴에 맞춰 냉방을 조절하고, 세탁·건조 제품은 세탁물의 오염도를 감지해 세탁 과정과 물·세제 사용량을 조절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스코, 위험·반복 업무 로봇으로 대체

외벽·로비·주차장 청소로봇 투입
서빙로봇까지 도입 안전·효율 강화

포스코가 서울 포스코센터에 청소·서빙 로봇을 도입했다. 외벽과 실내 청소, 음료 배달 등 시설관리 곳곳에 로봇을 적용해 작업자 안전과 운영 효율을 높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스코와 이드와 함께 포스코센터에 로봇 기반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작업자는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포스코센터 외벽과 로비, 지하 주차장 등에서 청소로봇 실증 테스트를 진행했다. 4월에는 중국 상하이 청소박람회 등을 찾아 글로벌 기술 동향과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도입 기종을 검토했다.

외벽 청소에는 지난 5일부터 국내 최초로 로봇을 투입했다. 포스코센터 저층부 로비 구간에서 테스트를 거쳐 외벽 커튼 월(Curtain Wall) 유리 청소에 적용했다.

고층 건물 외벽 청소는 작업자가 로프나 곤돌라 등 고소작업 장비에 의존해야 한



포스코센터 로비 청소로봇. /포스코

다. 추락이나 장비 고장 위험이 있고 기상 변화에 따른 균형 상실과 자재 낙하 가능성도 있다. 로봇 투입으로 작업자가 직접 고소 작업에 나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건물 로비와 지하 주차장에도 청소로봇을 배치했다. 로비용 로봇은 한 번 충전하면 약 3~4시간 동안 300평을 청소할 수 있다. 주차장용 로봇은 최대 8시간 동안 약 600평을 청소한다. 미화 작업자의 노동 강도와 야간 반복 작업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청결도와 운영 효율을 높인다.

포스코센터 비즈니스 라운지에는 서빙로봇 3대를 투입했다. 음료 배달용 2대와 빈 컵 회수용 1대가 하루 평균 100여건의 주문을 처리한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타이어3사, 전기차 교체용 타이어 경쟁 가열

5~6년차 전기차 10만대 교체수요 진입

2020~2021년 등록된 국내 승용 전기차 가 올해로 5~6년차에 접어들면서 교체용(RE) 타이어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 2022~2023년 판매 차량까지 뒤따르면서 향후 교체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국내 승용 전기차 신규등록은 2020년 3만1333대, 2021년 7만 1529대로 두 해 합계 10만2862대다.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올해 차량 5~6년 구간에 해당하는 차량들이다.

같은 방식으로 내년에는 2021~2022년 등록 차량 19만5471대, 2028년에는 2022~2023년 등록 차량 23만9775대가 차량 5~6

년에 들어선다. 올해 10만대 수준인 잠재 차량군이 2년 뒤 24만대 안팎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이는 과거 신규등록 규모를 기준으로 한 잠재 차량군으로, 실제 타이어 교체 대수와는 차이가 있다. 폐차·수출·말소 여부와 주행거리, 마모·노화 상태 등에 따라 차량별 교체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삼성KPMG는 최근 '글로벌 탑티어로 란딩을 준비하는 K-타이어' 보고서에서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 지 5~6년이 지나면서 신차용(OE)으로 장착된 타이어의 교체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초 교체 고객과 반복 교체 고객을 구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타이어업체 입장에서는 교체시장의 중요성이 크다. 신차용 타이어는 완성차 업

체와의 공급계약을 통해 장악되지만, 교체 시점부터는 차량 소유자가 가격과 성능, 브랜드 등을 비교해 직접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신차용 공급 경쟁에 이어 소비자를 직접 확보하는 시장이 커지는 셈이다. 전기차용 타이어는 배터리에 따른 추가 하중과 모터의 강한 순간 토크에 대응해야 한다. 엔진 소음이 적어 타이어 소음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회전저항 관리도 중요하다. 이에 타이어업체들은 내마모성과 정숙성, 효율 등을 강화한 전기차 대응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온(iON)', 금호타이어는 전기차 특화 브랜드 '이노비(EnnoV)'를 운영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엔페라 슈퍼EV 루트'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승혁 기자 sh95@

K-제약바이오 혁신기업 육성 지원 강화

중기부, 복지부와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건복지부와 'K-제약·바이오' 분야 혁신기업을 추가로 육성한다.

중기부는 복지부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루닛에서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신약개발, 디지털헬스·의료기기, 바이오소재·생산기술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표 8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선 특히 신약개발의 경우

후보물질 발굴·개발 →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계획(IND) 준비·승인 → 임상 1상 → 임상 2상 → 임상 3상 → 품목허가·사업화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개발과정을 거치는 만큼 단계별로 필요한 연구개발(R&D)·임상·투자·사업화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 후보물질 개발 단계 및 비임상 단계에선 기술개발 및 시험·검증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임상단계로 진입할수록 대규모 자금과 전문인력, 병원·임상기관 등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임상 이후에도 품목허가, 기술이전, 후속투자 및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기업의 성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호 기자,